

大學博物館과 地域社會

~大學校博物館의 研究·教育 機能 - 「全北學 研究」 추진~

朴 天 植*

I. 대학박물관의 발전과 그 기능

박물관의 일반 공개의 효시는 1683년 Oxford大學의 Ashmolean박물관이다. 篤志家들이 박물관事業에 공헌한 한편 死後에는 대학 등에 증여하는 등의 현상이 점증하여 오늘날의 大學박물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영국의 “박물관 법”이나, ICOM은 그 정관에 박물관의 대외적 활동인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하에 보전(고려대학)과 이화여전(이화대학)에서 박물관이 설립되어 오늘의 한국대학 박물관의 태동을 보았으며, 민족교육의 장으로써 소임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 일제의 문화 멸실정책의 부산물인 민족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빈곤한 문화재에 대한 백치화현상을 극복하고, 절실한 국민정서의 함양을 기하고자 1955년에 “대학설치 기준령”에 모든 대학은 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1967년에는 종합대학에서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였다. 1961년 5월에 창립을 본 대학박물관협회는 연합전시회, 학술강연회 그리고 「고문화」 학술지의 간행 등 팔목할 업적을 쌓았고, 대학박물관의 연구기능은 민족문화개발의 위업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박물관의 행사기능]

1) 세계의 여러 공항들은 그곳 박물관의 Public Show Case를 비치하여 관광객의 유치뿐만 아니라 박물관 활동의 첫 관문이 되게 하였고, 거국적인 행사에는 반드시 박물관의 사업 및 활동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서울올림픽 때의 많은 특별기획전시회가 열렸었고, 엑스포 70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도 각종 문화전시와 기획전 등이 그 예이다.

1997년 1월에 全州에서 “冬季U大會”가 열림으로써 全北은 역사상 초유의 世界大會의 개최지로서 영광된 地名을 자리매김하는 신기원이 수립되기를 기약하기에 이르렀다. 그날이 되면 세계도처에서 운집하는 異邦人, 他處에 사는 한국인들이 <藝鄉全州>, 歷史的 韓國文化의 先進地域으로써 民族文化의 産室인 農土全北의 탐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원형을 찾는 호기심과 기대로 全北名譽의 본산인 全北大學校와 그 대표적 시설인 博物館에 이목이 집중

* 全北大學校博物館

되기에 이를 것이다.

소위 문화인의 가치기준에서美感은 創作藝術의 유구한 傳統性的 脈의 深原性和 삶의 道具藝術으로써의 住居·生活用器의 構成美에 첫자리를 둔다. 다행히 우리박물관은 이에 손색이 없는 풍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다만 관리의 허술함을 가릴 수 있으면 족하다. 더 바란다면 文明人, 外國人이 열람이 도움이 되도록 문명국의 수준에 걸맞는 영상소개시설을 갖추면 좋을게다.]

2) 대학교육이 公開大學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바에서 대학박물관은 그 중추 기관이며, 연구와 사회교육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춘 특수한 연구·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처럼 박물관의 절대적인 수가 모자라는 나라에서는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Ⅱ. 대학박물관의 바람직한 운영과 시설적 확충

첫째, 대학박물관의 독립된 건물과 종합박물관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전시실의 문화 체계별 실과 코너가 구획되고, 각 코너와 전시대마다 기획된 교육적 설명판의 게시가 필요하다.

둘째, 종합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3~5개 전문적인 연구기능의 분과가 개설되어 전공자로 하여금 박물관 운영을 유기적·연대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박물관의 자료·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계상되고, 분과별의 연구지원비가 관계학 분야의 지원을 획득하여 부단히 연구센터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과 일반에게 공개되는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 관계학문 분야에 관해서는 박물관 내에서 직접 강의나 실습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관계도서관의 활용도 박물관 내에서 동시에 이용하도록 대학도서관에서의 장기대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Ⅲ. 지방소재 大學校 박물관의 [문제와 그 해결책]

지방정치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소재 대학박물관은 지방 문화의 총량적 유물을 수집 소장하는 주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알찬 학술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첫째, 대학박물관의 독립된 건물과 대학박물관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학문화의 상징처인 박물관과 도서관은 그 위치의 선정과 부지규모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박물관 규모는 적어도 5,000m² 이상의 연면적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물은 미술관이나 특별전시관으로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문화의 건설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계승이 필수적이라면, 대학 박물관은 학내의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잘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내에서의 교육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유산의 관리자로서 우리대학이 조상과 후손에 대하여 저야 할 커다란 책임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학생과 일반에게 몇몇이 공개해야 한다. 관계학문 분야에 관해서는 박물관 내에서 직접 강의나 실습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로 전북의 경우라면 마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성을 살려 관련유물을 보유하고, 이를 상설화하여 전시·보존하는 일이다. 그 본래의 기능인 지역사회에 공개, 교육프로그램의 확보와 문명국의 수준에 걸맞는 영상소개시설을 갖추어 활용할 일이다.

[事例 研究 1] 「地域學 研究」 추진 계획

[一] 地域學 概觀

- I. 地域學의 基調 ~1. 지역학의 概念과 範圍 2. 지역학의 目的 및 意義
3. 지역학의 方法 4. 現況과 問題點 5. 인재양성기관의 설립

1. 지역학의 概念과 範圍

지역학이란 ‘韓國學/國學’의 한 분야로서, 당해 지역의 문화를 구체적, 종합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존의 학문들이 어떤 ‘특정의 전문분야’를 특정한 태도와 방법으로 연구함에 반하여, ‘지역학’은 연구 대상지역을 한정하는 대신,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지식을 종합하는 학제적(學際的 - interdisciplinary)인 태도와 방법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area study)의 방법론에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연구보다는 미시적인 연구, 이론적이고 전반적인 연구보다는 그 이론들의 구체적인 적용과 검증 및 그 구체적인 자료들의 축적을 통한 기존 이론체계들의 수정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2. 지역학의 目的 및 意義

지역학을 통해 기존의 한국학 연구의 문제점들을 개선 극복하여, 한국학의 지역별 구체성과 다양성을 획득하고, 한국학의 내적 충실을 기하는 데에 학문내적인 목적과 의의가 있으며, 실제적인 효용면에서는 지역문화의 구체적인 실체와 체계, 그 의미, 가치가 소상하게 밝혀지게 됨으로써, 지역문화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해 내고,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지역인들이 바람직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의의와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며, 한 지역 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특히, 닥쳐온 ‘문화전쟁’의 시기에 대처해야만 하는 ‘지방시대’의 무한 경쟁의 상황을 헤

처가기 위해서는 지역학은 이제 매우 화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학문이 되었다.

3. 지역학의 방법

지역학의 방법은 지역연구(area study)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들처럼 개별적, 독립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학제적(學際的), 통합적이다. 기존의 모든 학문의 방법들이 두루 종합된다. 그리하여, 우선 공통의 방법론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학문적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방법론들이 다시 보강 적용될 수 있고, 이 결과들은 다시 전복학 전반에 두루 적용하면서 재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검증된 결과는 마지막으로 실제 전복 지역문화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1차단계(보편론)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 자료들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가려지고 판별되어야 한다. 2차단계에서는 각 영역별 - 자연, 인문환경, 언어, 역사, 종교, 사상 등등 -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연구방법들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3차적 단계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다시 전복학의 연구대상 전반에 두루 적용하여 그 연구 결과의 진위와 가치를 재검토하고 확충하며, 그 결과를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수용하여 자기 분야의 연구에 활용한다.

끝으로,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단계는 이 연구 결과들의 '실용적 적용론'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복지역의 문화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지역학 전개의 현황과 문제점

진정한 의미에서 國家史나, 民族文化의 源流를 구명하는 연구방법론으로써 構造史學面에서의 文化傳統의 脈絡을 究明하는 일은 地方史研究가 수행되어진 土壤위에서 만이 可能할 것이다. 이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政策當局에서 一連의 努力을 경주하여(?) 1970年代에 [내 고장 전통찾기]類의 서책들이 간행되어 형식면에서는 市郡마다 자기고장의 문화사적인 단행본 저술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담 집필자에 따라서 간고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군청 문화체계가 관장한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專門性이 결핍한 취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 연구서로서의 몫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었다.

1980년대에 市·郡別 '文化財 地表調查事業'을 도와 단위 읍의 공동출연 사업으로 전문연구 기관(도내의 대학박물관이 주도)에 용역연구로 다수의 단위 읍 별의 『報告書』가 간행된 바 있다. 이들 報告書의 편차(偏差)는 대체로 유사한데, 투여된 연구비의 지원이 전반적인 문화 양태를 다루기에는 영세하였으나, 주관처의 임의적 선택으로 항목영역에 따라서는 괄목한 문화체계의 정리를 보게 되었다. 이는 지역학연구의 기초작업이 최소한 행정읍 단위별

로 전국을 망라하여 수행된 최초의 국가적 기획사업으로 간주된다.

본 사업은 첫째, 현지 조사사업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고, 둘째, 전대의 『역사지리서』에 게재된 당해 읍 자료와 전통적으로 간행되어 온 『邑誌』류는 충분하고 전문적인 검토연구가 반영되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직구성원은 해당 부문의 지역문화 연구에 정력적인 연구실적을 갖춘 자가 참여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이가 발표한 업적이 수용되어야 한다.

地域開發의 先行課業은 住民의 自尊意識의 發露에 터하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의 기반조성은 자기고장의 先驗的인 文化樣相의 偉大性을 확인 인식한 自尊心의 鼓吹에 있다는 文化觀에 기초하여 ‘지역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개발연구를 요한다.

그런데 이상의 제 저술과 구래의 ‘읍지류’, ‘문집류’, ‘관서의 보관자료’ 등이 총괄적으로 검토되어 진위와 사실가치가 검토-검증의 연구를 통하여 취집 정리되어야 한다.

5. 지역대학은 전문인 양성기관으로, 『지역문화학과』류의 학과를, 또 이에 준한 강좌를 설강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학 연구] 「全北學 研究」 추진 계획서

全北大學校博物館

目 次

[一] 全北學 概觀

- I. 全北學의 基調 ~1. 概念과 範圍 2. 目的 및 意義 3. 전북학의 方法
4. 전북학 전개의 現況과 問題点 5. 인재양성기관의 設立 건의
- II. 全北學의 類別 概觀 ~1. 자연 人文환경 2. 언어·민속 3. 역사·고고
4. 종교와 신앙 5. 사상과 시대 이념 6. 衣食住 7. 藝術
8. 教育·체육 9. 산업·경제 10. 政治·행정·군사

[二] 全北學 事業

- I. 事業概要 ~1. 전북학 기초연구 발간 2. 전북학 심포지움 3. ‘도민문화대학’의 운영
4. [全北學 資料室] 運營. 各種 ‘영상물’ 제작 5. 위탁연구와 용역사업 수행
- II. 全北學 著述 刊行事業 ~1. [全北學의 基礎] 6권 간행 2. 『全北學資料集』 12권 간행
3. 『全北文化開館』 3권. 人文學編, 産業·自然學編, 藝術編,
[合集 1권]
4. [全北學 叢書] 30권
5. 『全北學 百科事典』 3권. 人文學編, 産業·自然學編, 人物編
- III. 全北學 推進의 重要 行事

1. '심포지움' - 1) '96 全北學 '심포지움' (안) - 2) '97 U대회 국제학술대회(안)
- 3) '全北學 발전전략 심포지움' (안)
2. '전북도민문화대학' 강좌 - 1) '97 U대회 자원봉사자 교육(안)
- 2) 市民講座 교육(안) - 3) 學生委託 교육(안)

IV. [全北學 資料室] 運營

V. 기간계획 및 경비

[三] 全北學 研究의 조직 및 구성

1. 구성 : 본 연구원은 2개의 위원회와 3개의 활동부로 구성
2. 조직 : 1) <전북학 발전위원회> 2) <전문위원회>

[二] 全北學 事業

I. 事業 概要

1. 전북학의 기초연구, 자료조사 및 전문서적의 발간
 - 1) [全北學의 基礎] 6권, 2) 『全北學資料集』 12권, 3) 『全北文化概觀』 3권
 - 4) [全北學叢書] 30권, 5) 『全北學 百科事典』 「人文學編, 産業·自然學編, 歷史 人物編」
2. 전북학 심포지움 및 관련된 국내외 연구활동
3. 전북도민문화대학(단기강좌개설)의 운영
4. [全北學 資料室] 운영 - 각종 자료취합 및 영상물 제작 보급
5.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와 용역사업 수행

II. 全北學 著述 刊行事業

1. 전북학의 기초연구, 자료조사 및 정리작업과 지원
 - 1) [全北學의 基礎] 시리즈 6권 간행, 각권 - 신국판 300면 - 각 500부 <※ 非賣品>
☆1권 『全北學 概要』 간행, '95년 8월, 2권 『全北學 발전전략』 간행, '96년 10월.
3~4권 『全北學의 展開』 上下 '97년 1월, 5~6권 『全北學의 進路』 上下 '98년 10월
 - 2) 『全北學資料集』 12권 간행, ~각권 - 46배판, 700~1,500면 - 각500부 <※ 非賣品>
☆ 1~3권, '96년 10월, 4~6권 '97년 10월, 7~9권 '98년 10월, 10~12권 '99년 10월
2. 「전북학 총서(叢書)」 「연구 보고서」 및 「전문서적」의 발간
 - 1) 『全北文化概觀』 3권 - 人文學編, 産業 自然學編, 藝術編, 각권 - 국판 300면 각 500부,
'전북도민 문화대학' 강좌 교재용, [合集1권] 3,000부 <※ 道지원용 - 非賣品>
☆ 1권 『全北文化概觀』 - 人文學編, 간행, '96년 12월
2~3권 『全北文化概觀』 - 人文學編, 藝術編, 간행, '97년 2월

- 2) [全北學叢書] 30권, 각권 - 신국판 300~500면(평장본 각500부; ※ 非賣品)
 - 3) 『全北學百科事典』 3권, 각권 - 칼라 배판 1,500면, 「人文學編」, 「産業·自然學編」, 「歷史·人物編」, <각권 - 값: 30,000원>
- ☆ 기간계획, '95년 2월 → '97년 2월, 編輯진용구성 → 項目추출<編輯陣의 자료수집>
 '97년 2월 → '98년 2월, 執筆의뢰 → 原稿취합, 項目추가는
 '98년 2월 → '99년 2월, 原稿보정, 項目추가 및 보정 = '99년 9월 → '99년 12월, 印刷 - 補給
- ※ 『全北學百科事典』 통권 - 배판 3,500면<인디안지, 양장본> <값: 100,000원>

Ⅲ. 全北學 推進의 重要 行事

1. '심포지움' <'98이후 정례 '전북학 심포지움' 으로 정착>
 - 1) 全北學 '심포지움', '95년 8월(안; 光復50周年紀念행사)
 - 2) '全北學 발전전략 심포지움', '96년 10월(안; 全北道 100周年紀念행사)
 - 3) '97 U대회 국제학술대회, '97년 1월(안)
2. '전북도민 문화대학' 강좌<'98이후 정례 교양강좌로 정착>
 - 1) '97 U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96년 8월 - 5회(안)
 - 2) 市民講座 교육(안), '96년부터 매3월~5월 - 9회
 - 3) 學生委託 교육(안), '97년부터 매7월~8월 - 5회

Ⅳ. [全北學 資料室] 運營

1. [박물관 農器具 기획전시실] 설치 ~① '전북의 농업발달과 수도작문화'의 전시.
 ② '동아 제민족국가의 농경문화적 공유요소' - 세계화 전략 - 의 전시.
2. 전북문화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 '영상자료' 등 비치 연구 열람실로 운영.
3. [전북문화 映像室] 설치 및 '영상물' 제작 보급.
 - ※ 시설 - ① 전북대학박물관 부속시설로 운영, 연90평규모<예대 미술관 - 2실 활용>
 ② 전북대학박물관이 보유한 50여점과 동진농조박물관 보유품의 임대전시
 - ※ 경비 - ① 農器具전시실 시설비 - 30,000,000원
 ② [圖書·映像室] 제작, 구입, 시설비 - 60,000,000원<3개년분할>
 ③ 연간 운영비 - 25,000,000원<비교; 관리원2명 인건비, 제작·관리유지비>

[三] (가칭) '全北學 研究院'의 조직 및 구성

1. 구성: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2개의 위원회와 3개의 활동부로 구성된다.
 - 1) <전북학 발전위원회>: 전북학에 관련한 교내외의 인사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전북학 연구에 대한 자문과 방향제시 및 주요사항의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전문(실행?)위원회> : 전북학에 관련된 전문인사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운영 및 연구의 진행, 관리 등을 담당한다. 산하에 다음의 활동부서를 둔다.

(1) <기획학술부> : 전북학 연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교내외 위탁연구 및 연구용역사업, 학술행사, 출판 등을 담당한다.

(2) <연구조사부> : 전북학 연구의 학문적 연구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 탐사 정리, 연구지원, 자료실 운영 등을 담당하며, 전북학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집을 발간한다.

(3) <생활교육부> :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문화의 의의와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민문화대학의 운영 및 각종 문화강좌, 현장학습교실, 미디어교실 등을 운영 지원한다.

2. 조직 : 全北學研究院 — 가. [발전위원회]~의장[원장겸무]

— 나. [전문위원회] — 1. 기획학술부

~ 위원장[박물관장] — 2. 연구조사부

— 3. 생활교육부

[四] [全北學 叢書] 刊行事業의 範疇

30권, 각권 - 신국판 500면의 推進<筆者의 승락을 확인치 못한 상태, 선정은 미정>

☆ I. [자연·인문환경] - 1. - 2. - 3.

1. 『全北의 자연환경』, 500면.

① 「全北의 脂質 土壤 研究」: 地質科 鄭在一 ② 「全北의 地理 風土 研究」: 地理科 張昊

③ 「계화 간척지구의 영농 생산공간에 관한 연구」: 地理科 南宮 燧

④ 「全北의 森林資源」: 森林科 姜聲然 252-5758 ⑤ 「全北의 水産資源」: 生物科 李炳勳

⑥ 「全北의 鑛山資源」: 金屬科 陣永喆 83-2013 ⑦ 「全北의 魚類」: 生物科 金益秀

[事例 研究 2, 행사]

'95 U대회 자원봉사자 전북학 교육(안)

1. 사업목적~전북의 역사, 문화, 사회, 예술 전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좌와 문화유적 및 산업시설 시찰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전북의 역사, 문화 및 지역사회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케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반영, 올바른 고장의 문화인식을 정립 및 오류사항 시정을 유도하며, 상호 이해제고를 통한 전북지역 사회와 문화재 이해를 증진

2. 사업개요

가. 기간 : 횡수 및 기간설정협의 1기('96. 1. 8~1. 11) 2기('96. 1. 15~1. 18)

나. 장소 : 전북대학교 부속박물관

다. 참가인원 : 1기 100~120명, 2기 100~150명

라. 역할분담 : U대회 사업본부, 도문화체육과 : 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비 지원, 전북대학교
교부속박물관 :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강의장소 제공

바. 교육장소 : 전북대학교 부속박물관

사. 강의내용 : 전북사, 언어, 예술, 종교,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괄 다룸.
강의중점사항, ()은 배정시간임(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총 4일, 계 20
시간)

- ㉠ 오리엔테이션(1) : 행사의 취지와 진행일정. 『특강 - (1)』
- ㉡ 전북의 근대화(2) : ① 현대 정치사의 변동과정을 개괄하고 전북인의 위상을 정립
② 일제강점과 독립과정에서의 전북인의 역할[의병활동과 광복운동]
- ㉢ 전북의 민속(1) : ① 좌도악·우도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상(농악)
② 전북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소개
- ㉣ 전북의 건축과 주거(1) : ① 건축, 도예, 공예 등 전북의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
② 전통기 가옥. 공공건물의 기능상 특성과 전북 분포상
③ 주거생활과 환경
- ㉤ 농업(1) : ① 전북의 농업발달과 農器具[박물관 기획전시실 탐방]
② 수도작 문화의 전개[동아 제민족국가의 문화사회적 공유요소 - 세계화 전략 -]
- ㉥ 연예 ① 무용(1) : 전통무용의 발전 ② 한국춤 영상자료(1) : 전라도의 춤과 가락
③ 연극(1) : 연극해설 및 연극사 강의 ④ 국악(1) : 시연을 통한 이해와 실습
- ㉦ 교육(1) : ①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전북지역교육의 성격과 방향
② 전북의 향교와 교육·사회기능 ③ 가족제도 : 전통기 가족제도와 가족윤리
④ 전통예절 : 가례 및 세시풍속기 교육
- ㉧ 지리·토양(1) : ① 기후, 지형, 산업, 환경, 인구분포 등 인문지리 및 관광
② 전북의 자원, 지질구조 토양분포 및 환경문제
- ㉨ 정치(1) : ① 한국 중세기 지방정치와 자치기능
② 현재의 정치제도와 대외정책, 한미관계 및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향후 발전전망. 지방정부의 기본성격
- ㉩ 경제·산업(1) : ① 시장개방(특히 농산물)과 통상마찰 ② 전북의 교역
③ 농촌경제 : 경제작물의 개발전략
- ㉪ 전북의 문학(1) : ① 전북의 고전·고고·미술(각 1)
② 전북의 문학 발달 ③ 국어학과 전북
- ㉫ 명승·유적·관광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각개 政治·社會組織은 물론이거니와 구성원 개개인이 진정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건전한 역사의식을 토대로 역사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호남인은 한국 역사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사회 변환기에 있어서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역사속에 묻혀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역사가 왜곡 굴절된 것은 물론, 이에 근거한 호남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은 호남인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호남에 대한 편견과 지역 차별 감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호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의 그늘속에 묻혀 있는 지역 향토사의 역사적 실상을 밝혀내고,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II. 壬亂克服에 있어서 湖南의 役割에 대한 再照明

조선이 임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호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임난 이후 식자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태부족하여 현재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壬辰~丁酉期에 있어의 제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시의 호남의 상황과 전란 극복에 있어서 전북인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 호남 지방인의 역사적 주체 역량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진정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함양한다.